

<div>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div> <div>관계 부처 합 동</div>	<div>보도자료</div>	<div>작 성</div>	2012. 11. 16(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사무관 박용주 (Tel. 02-2100-2245)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교폭력근절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일형 (Tel. 02-2100-665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반통계국 교육통계과장 최수진 서기관 이소영 (Tel. 02-2100-6322)
			<div>배 포</div> <div>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 (Tel. 02-2100-2106)</div>
★ 11월 16일(금)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총리 주재,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집중 논의

- 2차 실태조사 결과 공개,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1,000개교 내외)” 및 “일진경보학교(100개교 내외)” 선정·지원
-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 직후 삭제
- 피해학생·학부모 전담 지원 기관, 올해 12월부터 신설·운영
- 단위학교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16일(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2.6) 이후 추진된 부처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 △피해학생 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대상) 초 4~6, 중.고 전체 학생(약514만명) * 전북교육청은 불참(21만명)
- (기간) '12. 8. 27 ~ 10. 12
- (내용) 피해, 가해, 목격,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총15문항)
- (방법) 온라인 조사(시.도교육청별 나이스 학생서비스)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 이번 조사는 불참 의사를 밝힌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51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참여 현황

- ◆ 학생 참여율 ↑ (1차 25%⇒73.7%), 조사 신뢰도 ↑
- ▶ 참여율 10% 미만 학교 '0'개교 (1차 조사 10% 이하 1,914개교)
 - ▶ 제주(88.2%) > 대구(86.6%) > 경남(86.3%) > 세종(83.6%)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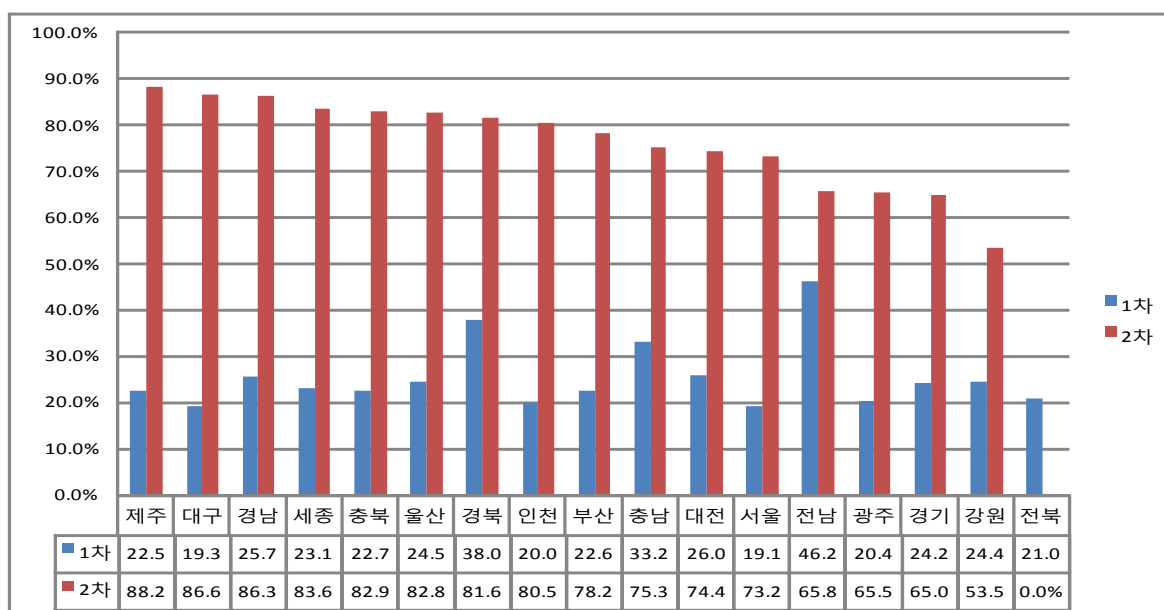
-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73.7%인 379만명이 참여하였다. 1차 조사 참여학생이 140만명(25%)이었던 것에 비해 2차 조사의 참여율은 대폭 향상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 이와 같은 참여율 증가는 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학기 중 온라인 조사로 변경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예방교육 기능 추가 및 조사참여 홍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 1차 조사 발표 이후 ‘학교폭력을 밝히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육현장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시·도교육청별로는 제주(88.2%) > 대구(86.6%) > 경남(86.3%) > 세종(83.6%) 順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 전북교육청의 경우 온라인 조사에 불참하고, 학교별 자체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여 조사 신뢰성 담보하기 어려워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시·도별 참여 현황 비율(1,2차 조사) >



주요 분석 결과

【1】 학교폭력 피해 현황

◆ 피해응답 학생은 321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

- ▶ 총 피해건수 56만건 중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11만건(19.6%)
- ▶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응답 학생은 136천명
- ▶ 심한욕설 등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피해와 함께 발생
- ▶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의 8.5%인 321천명으로, 이 중 136천명(42.4%)이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은 17만명으로 전체 응답의 12.3%

○ 피해응답 학생은 초 134천명(11.1%) > 중 136천명(10.0%) > 고 51천명(4.2%) 순으로 많았고,

○ 남학생(203천명, 10.5%)이 여학생(118천명, 6.4%)보다 피해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피해건수는 총 56만건으로, 심한욕설(190천건, 33.9%) > 물건(돈) 빼앗김(91천건, 16.2%) > 집단 따돌림(64천건, 11.4%) 순으로 응답했으며,

* 1차 조사와 유사 경향 : 심한욕설(37.9%) > 집단따돌림(13.3%) 順> 물건(돈) 빼앗김(12.8%)

○ 특히, 심한 욕설 등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빈도(1주일 1~2회 이상)나 지속 정도(4개월 이상)가 심각한 피해는 11만 건(전체 피해의 19.6%)에 달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정서적 고통 역시 상당하여, 피해 학생의 46.4%(149천명)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했으며,

○ 특히, '집단따돌림'(75.2%)과 '사이버 괴롭힘'(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 및 가정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61.6%),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했고, 피해사실은 가족(28.5%) > 친구·선배(19.1%) > 학교(15.0%) 순으로 알려지, 알리지 않는 경우도 2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교폭력 가해 및 목격 현황

- ◆ 가해응답 학생은 156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
 - ▶ 가해학생의 69.9%는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으로 공감
- ◆ 목격응답 학생은 664천명으로 전체 응답의 17.5%
 - ▶ 목격학생의 31.3%가 '모른 척 했다'고 응답

- 가해응답 학생은 전체 응답의 4.1%인 156천명으로,
 - 가해행동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학생의 69.9%는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 여럿이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62.6%, 혼자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37.4%
- 목격응답 학생은 전체 응답의 17.5%인 644천명으로,
 -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66%는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을 말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으나,
 - 학교폭력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1.3%나 되었다.

【3】예방교육 효과 등

- ◆ 응답학생 91.5%가 학교폭력 개념, 신고 방법 등 예방교육 효과에 '긍정적' 답변

-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91.5%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 * 초등학생은 97%가 긍정적 응답
- 응답학생의 94.4%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척한 학생들 역시 약 90%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인식변화를 보임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후속조치 개요 】

구분	조치
모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결과 사안처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 '학교알리미'에 실태조사 결과 공시
① 생활지도특별 지원학교 (시·도별 10%, 1,000개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컨설팅, 상담인력, 학생보호인력 등 추가배치 ■ 기타 재정적 지원
↓	
② 일진경보학교 (시·도별 1%, 100개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와 동일한 지원 ■ 외부전문조사단에 의한 일진대책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18일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을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안내하였으며,
- 실태조사 결과 중 폭력 피해·목격 신고 서술문항(29만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117 신고센터에 제공 등 후속 조치가 진행중이다.
-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단위학교 후속 조치 절차]

-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수립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③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책 설명회 개최
- ④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시·도교육청 보고

- 2차 실태조사 학교별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단위 학교의 종합적 노력 등과 함께 11월말 학교별로 '학교알리미'(www.school info.go.kr)에 공시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별도로 실태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시·도별 10%, 1,000개교 내외)로 선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 참여율 50% 이하인 초·중학교, 30%이하인 고등학교 중 500교 내외(전체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하여 원인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피해응답율 20% 이상인 초·중학교, 10% 이상인 고등학교 중 500교 내외(전체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 또한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중 일진 존재 가능성과 학교폭력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를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일진경보학교'(시·도별 1%, 100개교 내외)로 선정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폭력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단 계	내 용
외부 전문조사단 심층조사 및 분석	①심층 설문문항에 의한 실태조사 ②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실시
↓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폭력서클 → 경찰과 연계하여 수사 등 조치 ②집단따돌림 →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공감의 학교 문화 조성
↓	↓
주기적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①일정기간(2~3개월) 경과 후 외부전문조사단의 모니터링 실시 ②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실시 ③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조사단의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기 중인 4월과 9월 연 2회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고, 조사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 직후 삭제

⇒ '13.2월 졸업생부터 적용

-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대상은 교내 선도가 가능한 1호, 3호와 다른 조치들에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2호, 7호 등 경미한 조치이며,
 - 4호·5호·6호·8호·9호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유형 구분>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기본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서면사과) ■ 3호 (학교내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호 (출석정지) ■ 8호 (전학) ■ 9호 (퇴학)
부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7호 (학급교체) 		

- 동 개선 사항은 2013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위원장(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

- 또한 현재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기말·학년말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정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며
-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부에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올해 12월부터 신설·운영 Wee센터 내 피해학생 전담 상담사 및 상담실 운영

- 올해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 피해학생의 치유를 돕기 위해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검사,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지원 기관 현황】

구 분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지원		
	계획 인원		기관(개)	계획 인원		기관(개)
	학생(명)	학부모(명)		학생(명)	학부모(명)	
현 황	30,210	10,210	318	49,658	20,955	505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운영되어 피해학생이 마음 놓고 최적의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 피해학생 현황 : ('10) 10,567명 → ('11) 14,147명 → ('12 상반기) 12,819명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12.12월 1개소 ⇒ 단계적 확대)하고,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3년부터는 시·도교육청 Wee센터 일부를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으로 운영하고, Wee 센터 내 피해학생 전담 상담사 및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 '13년 Wee센터 운영 계획 : 총 189개소(기존 136 + 신규 53)

3.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운동 확산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 운영(12월 2주~) 단위학교 언어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욕설, 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간 올바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2주부터 단위학교별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 이를 위해 기본·보급형(3차시) 프로그램과 심화·완성형(10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이트 “친구야 고운말 쓰자”(<http://kfta.korea.com>) 및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 사이트(<http://www.stopbullying.or.kr>)에 탑재 예정
- 이와 동시에 단위학교의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운동이 전 사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 언어 교육 우수학교는 적극 발굴하여 ‘언어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12.11.22, 교총 주관)를 통해 단위 학교에 확산하고,
 - ‘선플달기운동본부’ 및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협력하여 건전한 사이버 언어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대책 발표 이후,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장의 우수사례가 창출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 2차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 응답자에 8.5%에 이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담임수당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1】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참고-2】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참고-3】 : 대책 발표 이후, 추진 성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정일형 사무관(☎ 02-2100-6659),
 교육통계과 이소영 서기관(☎ 02-2100-6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연번 (연령순)	사 진	성명	현 직	주요 경력
1 (공동 위원장)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위원장 부산 Wee센터 센터장 미시간대 환경대학원 교수, 학생성공센터 소장 위스콘신대 기계공학 학사, 노스웨스턴 석박사
2		안 동 현	한양의대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부회장
3		조 정 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위원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위원 경찰청여성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위원
4		안 양 옥	한국교원단체총 연합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문체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 청소년연맹 이사
5		이 은 수	울산 온산중학교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사대 수학교육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일산중, 학성여고 교감
6		구 본 용	한국청소년 상담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장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위원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7		김 원 혁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대 행정대학원 졸업 서울남부범죄예방위원회 운영실장 現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
8		신 순 갑	학교폭력대책 범국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독일 Dortmund univ. 학교폭력과정 수료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9		김 양 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대우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연구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10		배 은 주	월촌중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석사) 월촌중학교 연구부장 인터넷윤리교육 교재 개발, 한국인터넷 드림단 지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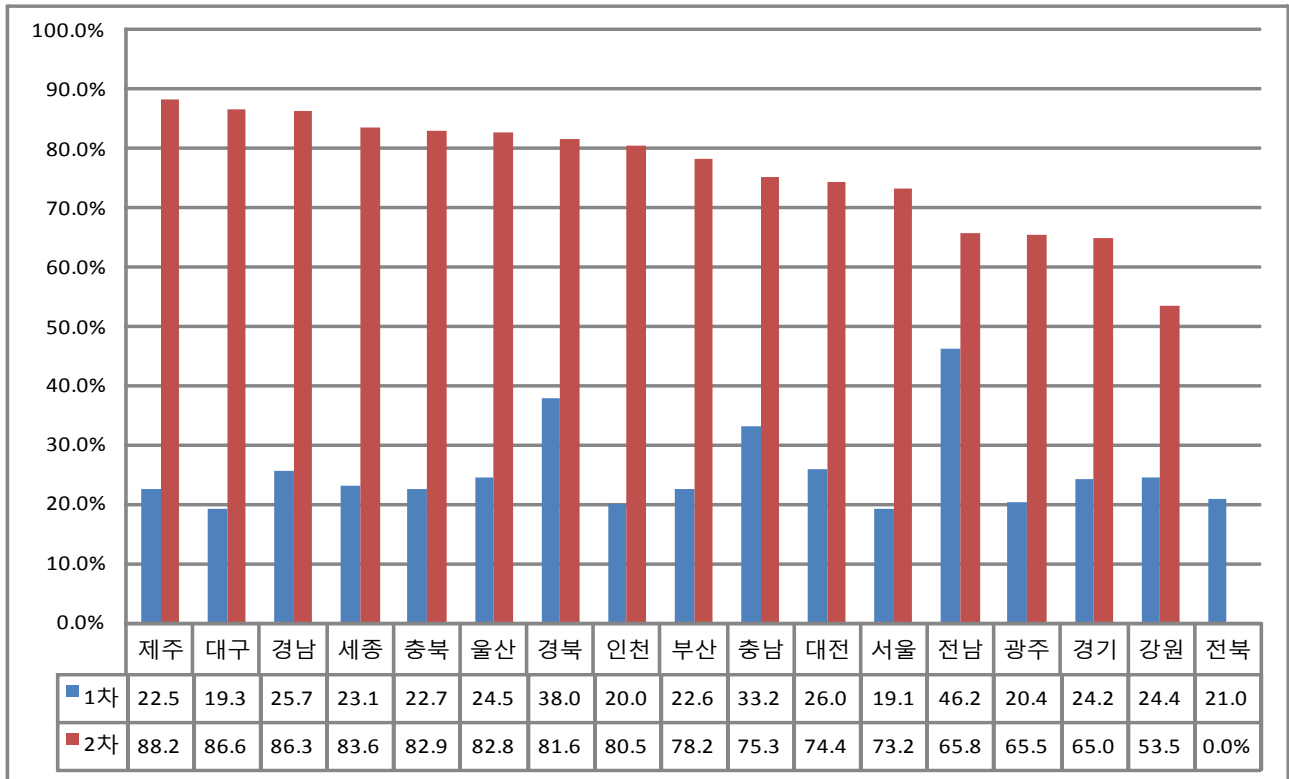
참고-2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2차 실태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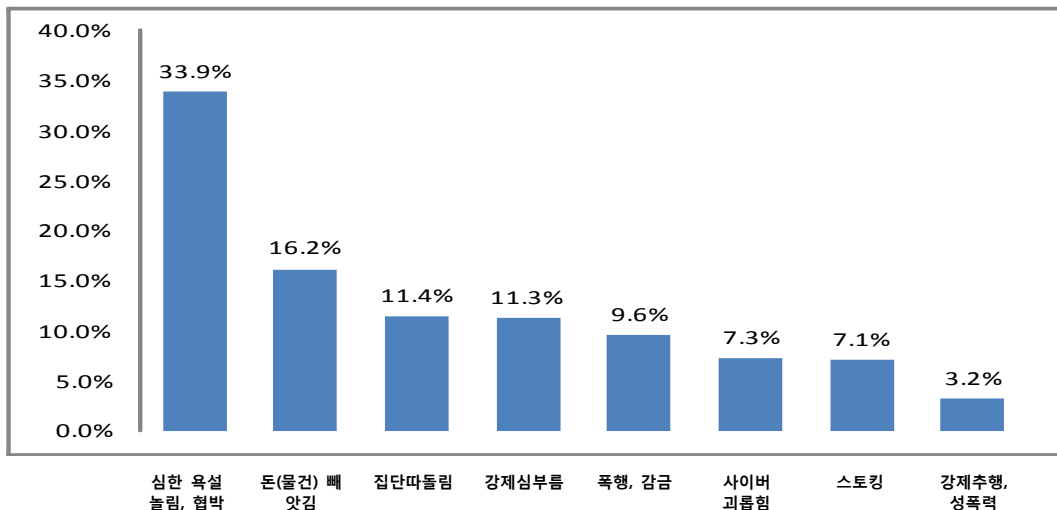
1. 참여현황

< 시·도별 참여 현황 비율(1,2차 조사) >



2. 피해 응답 현황

< 유형별 피해 건수 비율 >



○ 피해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발생 빈도	6개월 1-2회	한달 1-2회	1주일 1-2회	거의 매일	계	1차
폭행·감금	5.5%	1.6%	1.4%	1.1%	9.6%	10.4%
물건(돈) 빼앗김	12.2%	2.4%	1.1%	0.5%	16.2%	12.8%
강제 심부름	7.3%	2.2%	1.2%	0.6%	11.3%	7.1%
심한 욕설·놀림·협박	18.8%	6.1%	5.1%	3.9%	33.9%	37.9%
강제추행·성폭력	1.8%	0.5%	0.4%	0.5%	3.2%	5.2%
지속 기간	1개월	2-3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계	1차
집단 따돌림	6.8%	2.1%	0.8%	1.7%	11.4%	13.3%
사이버 괴롭힘	5.5%	0.9%	0.3%	0.6%	7.3%	13.3%
스토킹	4.6%	1.1%	0.4%	1.0%	7.1%	-
총 계	62.5%	16.8%	10.7%	9.9%	100%	10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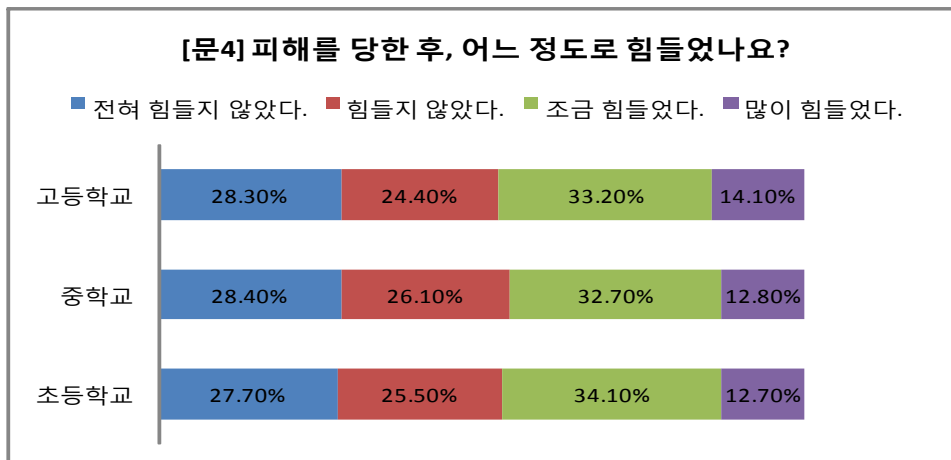
○ 피해 장소

학교 안	2차	1차	학교 밖	2차	1차
교실 안	41.7%	25.0%	학원이나 학원 주변	3.9%	3.5%
운동장	3.4%	5.9%	오락실, PC방, 노래방	3.5%	2.9%
화장실	2.2%	9.6%	놀이터, 공원, 동네골목, 뒷산 등	5.3%	3.1%
복도	5.4%		사이버공간(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5.7%	7.7%
기숙사	0.8%	-	우리집(친구집)	1.8%	-
학교 내 다른 장소	8.1%	7.5%	계	20.2%	17.2%
계	61.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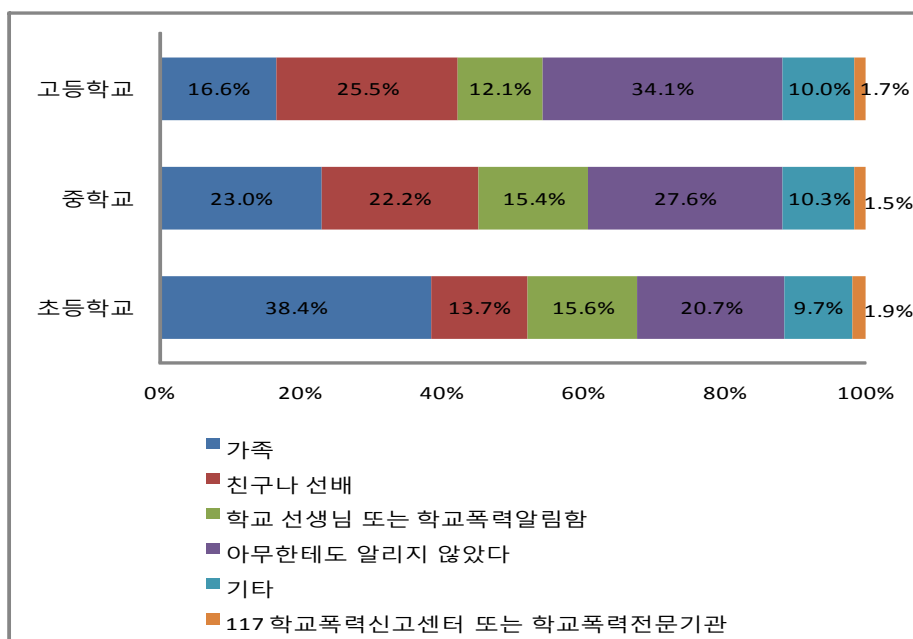
○ 피해 시간

피해시간	응답율	피해시간	응답율
등교시간	1.3%	하교시간	5.8%
쉬는시간	37.7%	하교시간 이후	17.6%
점심시간	8.7%	기타	22.1%
수업시간(방과후수업 포함)	6.9%		

○ 피해에 대한 학생인식(%)



○ 피해 신고



3. 가해 응답 현황

○ 유형별 응답현황

유형	응답율	유형	응답율
심한 욕설, 협박	27.4%	강제추행, 성추행	1.9%
강제 심부름	10.3%	집단따돌림	30.1%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8.1%	사이버 괴롭힘	9.4%
폭행, 강금	6.4%	스토킹	6.3%

○ 가해 방법

유형	학교급	응답율	유형	학교급	응답율
주로 혼자함	전체	37.4%	주로 여럿이 함	전체	62.6%
	초등학교	35.9%		초등학교	64.1%
	중학교	35.9%		중학교	64.1%
	고등학교	46.7%		고등학교	54.4%

○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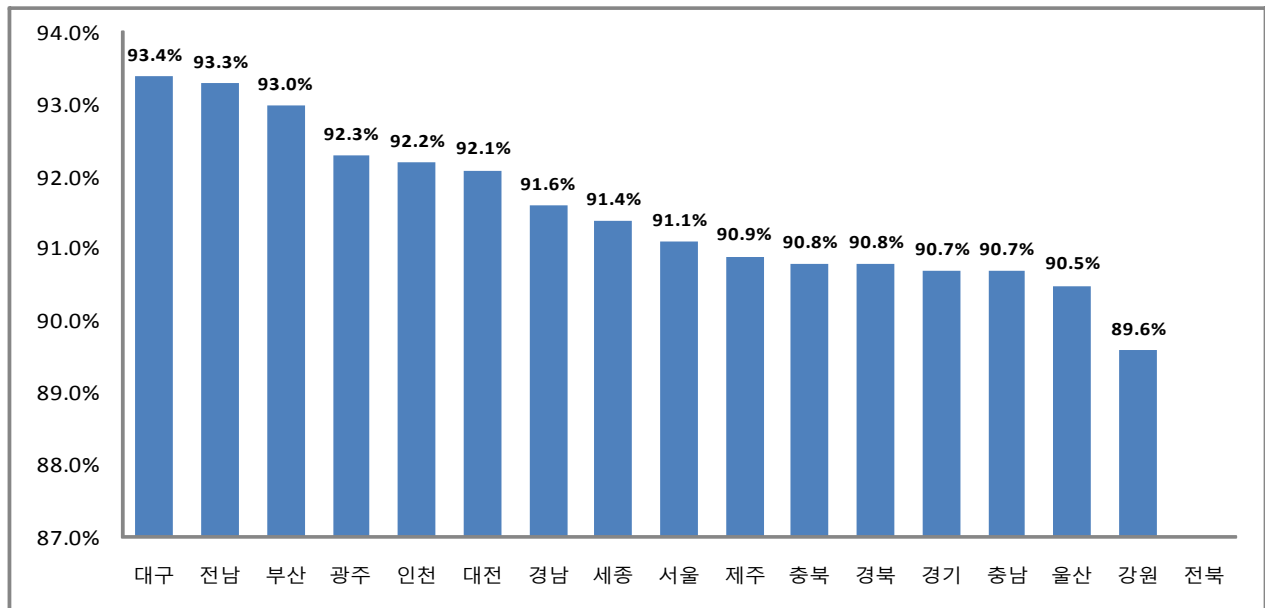
유형	응답율
힘들었을 것 같다	69.9%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	5.9%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	17.9%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6.2%

4. 목적 후 행동 응답 현황

유 형	응답율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	24.1%
가족(부모님, 형제 자매 등)에게 알림	13.8%
친구나 선배에게 알림	11.0%
학교선생님, 학교폭력알림함(신고함), 학교보안관에 신고	14.0%
117 학교폭력신고센터/학교폭력전문기관	3.0%
모른척 함	31.3%
나도 같이 다른 학생을 괴롭힘	2.7%

5. 예방교육 효과 등

<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시도별) >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 조사 개요 >

- (대상) 초 4~6, 중·고 전체 학생(약514만명) * 전북 21만명 제외
- (기간) '12. 8. 27 ~ 10. 12
- (내용) 피해, 가해, 목격, 학교폭력 예방 등(총15문항)
- (방법) 온라인 조사(시·도교육청별 나이스 학생서비스)
- (개선사항)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1차 조사 시 제기된 조사방법, 조사 항목, 공개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예방 교육 기능도 추가

◆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해 학생 참여율 ↑ (1차 25%⇒74%), 조사 신뢰도 ↑

⇒ 조사 도구 개선 등에 따른 학생들의 관심과 조사 참여 확대

◆ 피해응답 학생은 321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

- ▶ 총 56만 피해전수 중 상대적 심각한 피해는 11만건(19.6%)
- ▶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응답 학생은 136천명
- ▶ 심한욕설 등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피해와 함께 발생
- ▶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 가해응답 학생은 156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

- ▶ 가해학생의 69.9%는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으로 공감

◆ 목격응답 학생은 664천명으로 전체 응답의 17.5%

- ▶ 목격학생의 31.3%가 '모른 척 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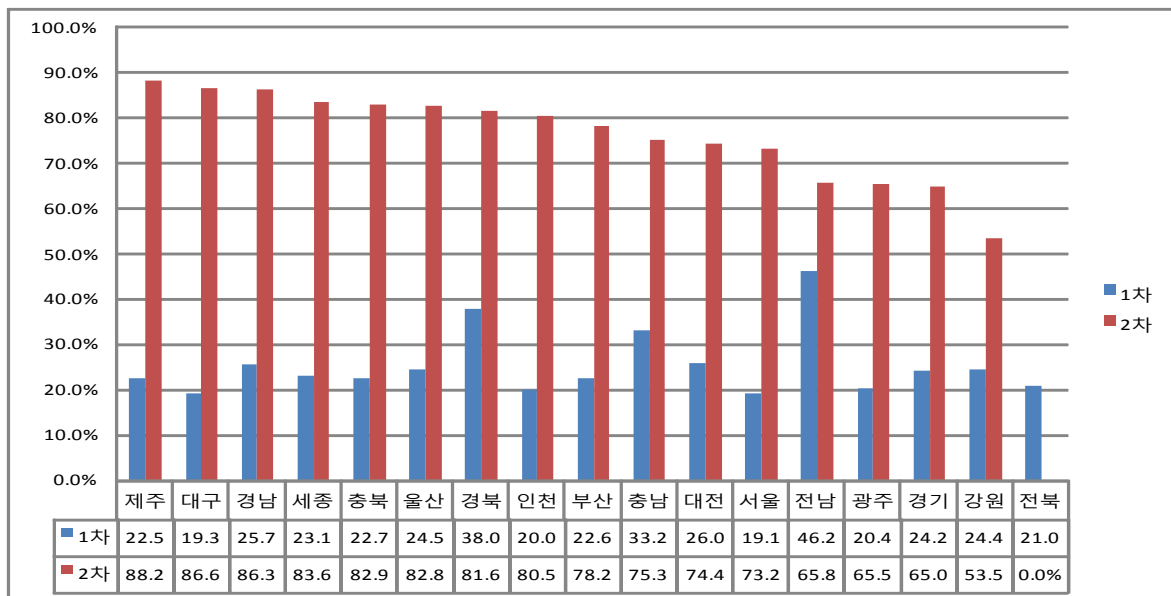
◆ 응답학생 91.5%가 학교폭력 개념·신고 등 예방교육 효과에 '긍정적' 답변

1

조사 참여 현황

- 조사 참여 : 총 514만명 중 379만명(73.7%) * 1차 140만명(25%) 참여
- (학교급별) 초 122만명(79.3%), 중 136만명(76.6%), 고 121만명(66.2%)
* 참여율 10%미만 학교 '0'(1차, 10% 미만 1,914교), 80%이상 62.6%
 - (시도별) 제주(88.2%) > 대구(86.6%) > 경남(86.3%) > 세종(83.6%) 순 높음
- 강원(53.5%) < 경기(65.0%) < 광주(65.5%) < 전남(65.8%) 순 낮음
-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조사에 불참, 학교별 자체 서면조사 실시로 신뢰성 담보 곤란
* (교육지원청) 경남의령(96.1%) > 대구동부(95.5%) > 경기용인, 경북 의성·울릉(95.3%) 순 참여율 높음

< 시·도별 참여 현황 비율(1,2차 조사) >



2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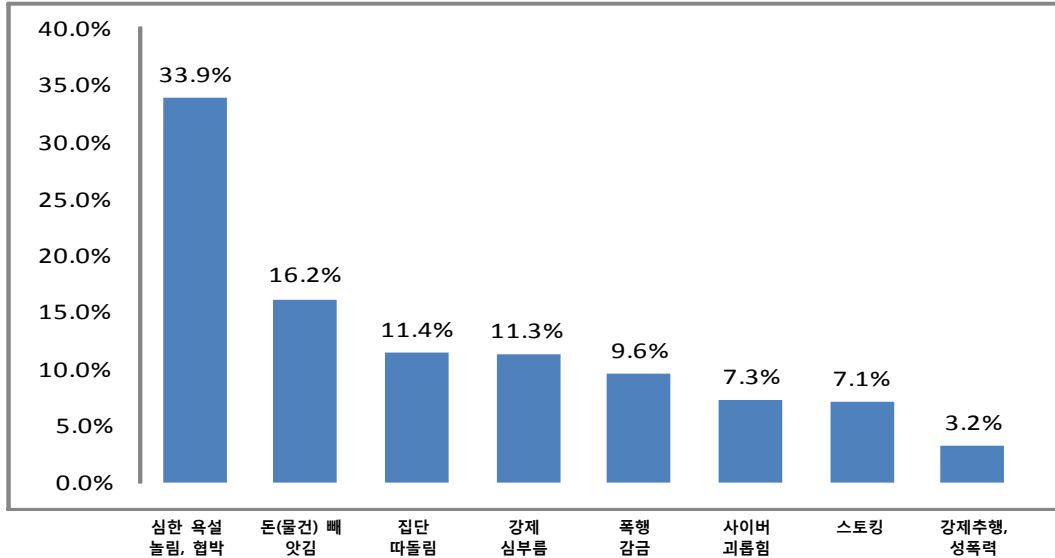
① 학교폭력 피해 현황

- 피해 응답 학생수 : 321천명(8.5%) * 1차 조사 피해응답 17만명(12.3%)
- (학교급별) 초 134천명(11.1%) > 중 136천명(10.0%) > 고 51천명(4.2%)
- (성별) 남학생(203천명, 10.5%)이, 여학생(118천명, 6.4%)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응답

○ 유형별 피해건수 : 총 56만건

- (피해유형) 심한욕설(190천건, 33.9%) > 물건(돈) 빼앗김(91천건, 16.2%) > 집단 따돌림(64천건, 11.4%) 순으로 높음

* 1차 조사와 유사 경향 : 심한욕설(37.9%) > 집단따돌림(13.3%) > 물건(돈) 빼앗김(12.8%) > 順



- (중복피해) 2개 유형 이상 피해 응답 학생수는 136천명(42.4%)이며, 심한욕설 등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피해와 함께 발생

* 중·고등학생은 '강제심부름' 피해가 13%이상으로 초등학생(8.6%)에 비해 높음

*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피해가 17.1%로 남학생(8.4%)에 비해 2배이상 높음

○ 피해 정도 : 피해 빈도나 지속 정도가 심각한(1주일 1-2회 이상 / 4개월 이상) 피해도 11만건(19.6%)에 달함

- 유형별로는 '심한욕설·협박', '집단따돌림'의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

* 상대적으로 경미(6개월 1-2회/1개월)한 피해는 36만건(62.5%)

< 피해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

발생 빈도	6개월 1-2회	한달 1-2회	1주일 1-2회	거의 매일	계	1차
폭행·감금	5.5%	1.6%	1.4%	1.1%	9.6%	10.4%
물건(돈) 빼앗김	12.2%	2.4%	1.1%	0.5%	16.2%	12.8%
강제 심부름	7.3%	2.2%	1.2%	0.6%	11.3%	7.1%
심한 욕설·놀림·협박	18.8%	6.1%	5.1%	3.9%	33.9%	37.9%
강제추행·성폭력	1.8%	0.5%	0.4%	0.5%	3.2%	5.2%
지속 기간	1개월	2-3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계	1차
집단 따돌림	6.8%	2.1%	0.8%	1.7%	11.4%	13.3%
사이버 괴롭힘	5.5%	0.9%	0.3%	0.6%	7.3%	13.3%
스토킹	4.6%	1.1%	0.4%	1.0%	7.1%	-
총 계	62.5%	16.8%	10.7%	9.9%	100%	100%
			19.6%			

○ 피해 응답자의 특징

- (주관적 인식) 피해학생의 **46.4%**(149천명)가 ‘힘들었다’고 응답
 - * 여학생(57.5%)이 남학생(39.9%)보다 학교폭력에 대해 더 힘들게 인식함
- (심각성 정도) ‘집단따돌림’(75.2%)과 ‘사이버 괴롭힘’(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음
 - * 피해 당한 후 ‘힘들었다’ 응답 : 따돌림(75.2%)>사이버 괴롭힘(65%)>스토킹(63.5%)>폭행(56.5%) 順
- (가해 경험)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 (만족도)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가정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 ‘불만족’ 응답 비율(16.6%)이 피해 경험없는 학생(4.7%)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피해 장소 및 시간

- (장소) 학교 밖(20.2%)보다 학교 안(**61.6%**)에서 주로 발생
 - * 학교 안 : 교실(41.7%), 화장실·복도(7.6%), 운동장(3.4%), 기숙사(0.8%) 등
 - * 인터넷, 휴대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발생도 5.5%에 달함
- (시간) 주로 학교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
 - * 쉬는 시간(37.6%), 점심시간(8.7%), 수업시간(6.9%), 등·하교시간(7.1%), 하교 이후(17.5%) 등

○ 피해 신고 : 가족(28.5%)>친구·선배(19.1%)>학교(15.0%) 순으로 알리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25.7%나 됨

② 가해 응답 현황

○ 가해 응답자 : 156천명(4.1%)

- (학교급별) 초 5.8% > 중 4.7% > 고 1.7%
- (성별) 남학생 4.9% > 여학생 3.3%

○ 가해유형 : 집단 따돌림(30.1%)>욕설·협박(27.4%)>강제 심부름(10.3%) 순

○ 가해 응답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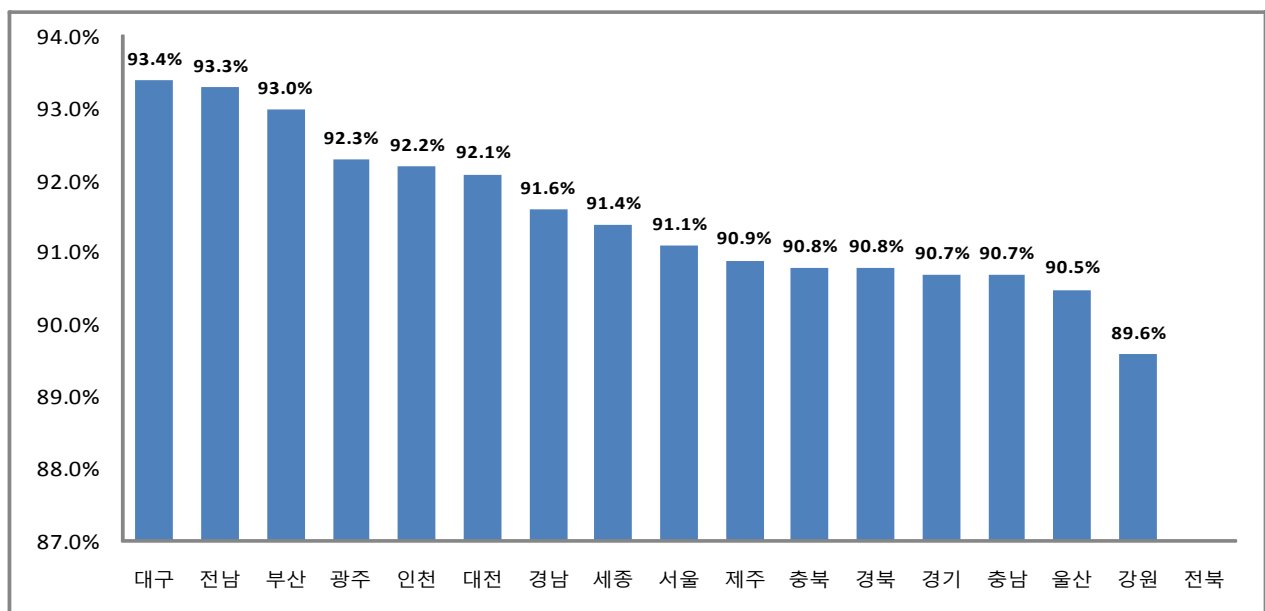
- (가해방법) 가해행동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음
 - * 여럿이 가해했다 62.6% vs. 혼자 가해했다 37.4%
- (공감여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69.9%**가 ‘힘들었을 것’으로 인식
 - * 반면, ‘폭력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6.2%, ‘힘들지 않았을 것’ 5.9% 응답

③ 목격 응답 현황

- 목격 응답자 : 664천명(17.5%)
 - (학교급별) 중 20.2% > 초 18.8% > 고 13.4%
 - (성별) 남학생 21.1% > 여학생 13.9%
- 목격 후 행동 : 친구를 말림(24.2%), 가족·친구(24.8%), 학교·117 신고(17%) 등 목격학생의 66%가 적극 대응했다고 응답
 - 반면, '모른 척 했다'는 31.3%, '나도 같이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응답도 2.7%

④ 예방교육 효과 등

- 예방교육 효과 :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91.5% 학생이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
 - (학교급별) 초등학생의 교육효과가 가장 높음('긍정적' 97%)
 - (시도별) 대구(93.4%)>전남(93.3%)>부산(93.0%)>광주(92.3%) 등이 평균이상
- <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시도별) >



- (목격·피해 후 계획) : 전체 응답학생의 94.4%가 향후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 요청, 신고 하겠다고 답변
 - *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척한' 학생들도 90%가 향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인식변화를 보임

【 후속조치 개요 】

구분	조치
모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결과 사안처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 ‘학교알리미’에 실태조사 결과 공시
① 생활지도특별 지원학교 (시.도별 10%, 1,000개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컨설팅, 상담인력, 학생보호인력 등 추가배치 ■ 기타 재정적 지원
↓	
② 일진경보학교 (시.도별 1%, 100개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와 동일한 지원 ■ 외부전문조사단에 의한 일진대책 추진

① 모든 학교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후속대책 수립

[단위학교 후속 조치 절차]

-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수립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③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책 설명회 개최
- ④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시·도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객관식 및 서술형 문항을 종합 분석하여 심층조사 실시 후 명백하게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심의·조치
 - 실태조사 폭력 피해·목격 신고 서술문항(29만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117 신고센터 제공 등 사후 처리(10.16~)
-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마련) 교내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파악하여 환경 개선 및 배움터 지킴이 교내 순찰, 학부모 자원 봉사자 활용, CCTV 배치 변경 등에 활용

- (신고체계 점진 및 개선)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선) 학교폭력의 개념, 문제점, 신고방법, 도움 요청 등 예방교육 분야별로 학생들의 인지 상태 분석 및 미흡한 부분 보완
- (결과공개) 11월말 학교별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 노력 등과 함께 공시

※ (공시항목) 실태조사 결과(참여학생수, 피해응답학생수, 피해유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및 실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등

②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선정·집중지원 : 시·도별 10% 내외(1,000교 내외)

- (선정 방법)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 실태조사 참여 및 피해 정도 등 학교폭력 실태 고려
 - (참여율이 낮은 학교) 실태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학교에 대해 원인분석,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 참여율 초·중 50% 이하, 고 30% 이하인 학교 중 총 500교 내외(전체 5% 내외)
 - (피해정도가 높은 학교) 피해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 ※ 피해응답 초·중 20% 이상, 고 10% 이상인 학교 중 총 500교 내외(전체 5% 내외)
- (지원 방안) 시·도별로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실시
 - 시·도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실시(필수)
 -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 안전강화학교 지정, 배움터 지킴이 추가 배치 등 지원
 - 교육기부, 지방자치단체 인력·센터 결연, 지지활동 강화 등

③ 일진정보학교 선정·집중관리 : 시·도별 1% 내외(100교 내외)

- (선정 방법)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가운데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를 동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

※ 지역별 선정 학교수는 시·도교육청에서 배정

- (선정 기준) 일진의 존재 가능성과 학교폭력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개입을 통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 2012년 1·2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17 신고전화를 통한 신고 현황 △ 자살, 성폭력 등 중대 사안 발생한 학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재심청구 현황
△ 학교폭력 관련 민원 현황 등

- (관리 방안) 학교폭력 문제가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학교폭력외부 전문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대상 학교를 관리

단계	내용
외부 전문조사단 심층조사 및 분석	①심층 설문문항에 의한 실태조사 ②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실시
↓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폭력서클 → 경찰과 연계하여 수사 등 조치 ②집단따돌림 →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공감의 학교 문화 조성
↓	↓
주기적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①일정기간(2~3개월) 경과 후 외부전문조사단의 모니터링 실시 ②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실시 ③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조사단의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④ '13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시기) 연 2회(4월, 9월) / 학기 중 실시
- (조사대상) 초4~고3 학생, 학부모 등으로 조사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조사도구 개선) 온라인 조사, 조사 문항 및 교육용 콘텐츠 지속 보완
 - (참여율 제고 방안) 참여율 낮은 학교 집중관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일환으로 실태조사 참여 의무화 등 참여 촉진 방안 강구
 - (문항 개선) 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계부처 조사 필요 문항(예:117 신고센터 인지도 등) 반영 및 결과 공유
- ※ '1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T/F 운영(12월~)

참고-3

대책 발표 이후, 추진 성과

1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해결된다는 분위기 조성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 연 2회 실시를 법제화

-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추진
- 1차 실태조사 결과('12.1월)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방법, 조사내용, 공개방법 등을 개선하여 2차 실태조사 실시 완료('12.8~10월)

구 분	< 1차 실태조사 >	< 2차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우편조사 ➡ 참여율 25.0%	■ 온라인 조사 ➡ 참여율 73.7%
조사내용	■ 피해사례 위주 조사문항 ■ 파일럿 조사 미실시	■ 피해·가해·목격 사례, 예방교육 포함 ■ 파일럿 조사 실시(2회)
결과공개	■ 교과부/학교 홈페이지	■ 학교별 일괄 비교되지 않도록 일부항목만 학교별 공시(매년11월)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체계화하여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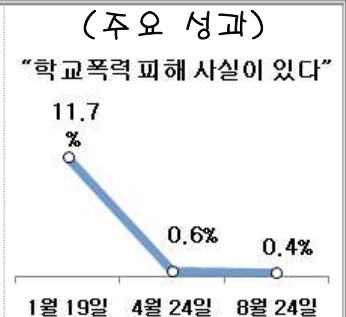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수사, 긴급출동, 관련기관 연계,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신고하면 해결되는 신뢰감 형성
- ※ 전체 신고 건수('11년 대비 216배 증가) : ('11) 280건 → ('12.10월 기준) 60,553건

□ 학교폭력 발생 시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사안 처리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실시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0) 13,748건 → ('11) 13,620건 → ('12.8.31기준) 12,017건
- ※ 가해학생 보호조치 : ('10) 19,553건 → ('11) 24,084건 → ('12.8.31기준) 17,967건

<<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우수사례 - 대구 대서중 >>

- (현황)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관내 학교 중 학교폭력 심각성이 가장 높음 ⇒ 학생·교사 간 소통 부족이 원인
- (주요 내용) 해병대 캠프, 'EVERYDAY 10 10*' 운동, 또래 조정 프로그램, 프리 허그(free hug) 프로그램 등 학생·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소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10회씩 하이파이브를 하는 프로그램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치료와 가해학생 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구분	개선 이전	개선 이후	효 과
교육 · 치료 대상	피해학생 치료지원 미흡 “피해학생 학부모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강화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토록 제도 개선	피해학생 우선보호
	가해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책임 의식 부재”	가해학생 + 학부모 특별교육 *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이수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프로 그램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 미흡 “교육을 다녀와도 변화가 없다”는 인식	학생의 특성, 학교폭력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가해학생 재발방지
사후 관리	학교 복귀 후 추수지도 미흡 “장기적인 휴유증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경우” 발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이 정상 적응할 때까지 계속 지원	

<< 학부모 특별교육을 통한 가해학생 치유 우수사례 - 인천교육청 >>

- (현황)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부모 중심, 개인 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녀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요 내용)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자일체 (父子一體) 감동캠프* 운영
* 총 2,000명 교육 완료(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 (주요 성과)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99.5% 감소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제도 시행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先치료 지원-後처리 시스템 도입('12.3.26)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현황('12.10월 기준) : 총 192건, 483백만원 지원

□ 치유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 Wee 프로젝트(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 및 부적응 학생 조기 진단·치유 내실화

※ Wee클래스 : ('11)3,170 → ('12)4,744교, Wee센터 : ('11)126 → ('12)136소
Wee스쿨 : ('11)3 → ('12)4개교

○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소재 유관 전문 교육·치료기관, 소아정신과 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치유 기관 확보

※ 전국 823개 기관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유 지원 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청소년비행예방센터(10개소), 지역 정신보건센터(15개소), CYS-Net (186개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심리치료, 특별교육, 개인·집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12.8월 기준) : 치료(268개), 교육(711개), 상담(272개), 관계기관 연계(106개)

□ 치유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 상담 중심 획일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족캠프, 연극 치료 등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민간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 ▶ (전문단체) 학교폭력 관련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확산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캠프 운영
 - 패트롤맘, 가해학생 대상 엄마품멘토링 운영
- ▶ (민간기업) 김정문알로에의 회사 연수시설·농장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운영
- ▶ (종교계)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전국 20개)

○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 가해학생의 행동·심리 교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의 상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술 치료를 통한 피해학생 치유 우수사례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현황)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심리 치유 프로그램 부족
- (주요 내용) 연극, 춤, 원예, 미술, 음악(난타) 등 예술 치료 및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
 - * 120~180명 단위로 정기적인 1박 2일 캠프 실시(7, 8, 10, 11월)
- (주요 성과) 피해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정을 나누며 자존감을 조기에 회복



-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12.8.7) 마련하여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역할·책임 강화
-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운영
 - 학생 상담 기회 확대를 위해 담임의 역할을 학급 운영, 교과 외 활동지도 및 생활지도로 법제화 추진
 -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담임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학습연구년 선발 시 우대,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 ※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전문적인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충
- '12년에는 공립학교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500명) 하였으며, '13년에는 사립학교(500명)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단계적 확대
- ※ 전문상담교사 확대 : ('11년)922명 → ('12년)1,422명
- ※ 전문상담사 확대 : ('11년)1,929명 → ('12년)4,644명
- 교사 간 학생 생활지도 정보 공유를 위한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인성요소별로 구체적으로 관찰·기록('12.1)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

《 학교생활지도록 작성을 통한 학생 상담 우수사례 - 가장초 》

- (현황)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기초 자료 부족
- (주요 내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실태조사지 및 통계표, 고위험학생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을 '학생 생활지도록'으로 누적 관리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 (주요 성과) 학교폭력 피해 신고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 (4월) 146건 → (5월) 195건 → (6월) 110건 → (7월) 53건 → (9월) 39건



4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장(감),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51,601명) 연수 완료

-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집합식·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식·토론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상반기 학교 컨설팅 추진 성과(7월, 390개교)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시·도교육청 단위에 '상시 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

【상반기 학교 현장컨설팅 추진 경과】

▶(일시/대상) 2012.7.2 ~ 7.20, 390개교

▶(컨설팅단) 교육·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32개조, 160명)

-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흡한 학교 집중 관리·지원
-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12.11.7)
 -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확대,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 알리미 서비스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 안전 전반에 걸쳐 개선

<< 체험식·토론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우수사례 - 약산초 >>

- (주요 내용) 역할극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및 발표회 등 체험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매일 아침 1교시 시작 전,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4대 규칙을 방송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인식 제고 병행

- (주요 성과) 학교폭력 피해 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강화 및 입시에 인성요소 확대

- 3~5세 누리과정('12.7.10) 및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12.7.9)을 통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강화 기반 조성
- 대입 입학사정관전형 및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인성요소를 포함하여 비중있게 평가

※ 대교협,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66개 대학과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성평가 강화 방안 발표('12.5.31) / 자기주도 학습 전형 개선 방안 수립('12.3.8)


□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우수 모델 발굴

-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140개원)과 어린이집(140개소)을 선정·지원
- 학생 언어습관 개선, 학칙 준수, 법제교육 등 인성교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300개교)를 선정·지원

□ 체험·활동 중심의 실천적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활성화

- 초·중·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재'(9종)를 학교에 보급('12.7)하고 국어·도덕·사회과 등 교과 수업에서 체험형 수업을 실시('12.9~)

<<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우수사례 >>

☞ 국어(신영초)	☞ 도덕(대모초)	☞ 사회(창덕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알림편' 만들기 수업으로 꿈, 재주, 성격 등 자신의 모습을 표현 ▪ 다른 사람의 모습에 '이름 붙이기 활동'을 통해 급우 간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나, 우리는 통해요' 주제로 '또래상담' 프로젝트 수업 실시 ▪ 급우 간 갈등을 해소하는 체험을 통해 공감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과의 '비폭력 대화', 도덕과의 '학급규칙 만들기'와 연계하여 '약식 자치법정' 수업 실시
		

- 학생들이 게임,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배려, 협동심 등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 활동 확대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하여 주당 2~3시간인 중학교 체육 수업을 주당 4시간씩 전 학기(6학기) 편성·운영
 - 방과후점심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 리그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토요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
 - ※ 교육지원청 스포츠리그 확대 : ('11) 23개 리그 ⇒ ('12) 890개 리그
 -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확대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 ※ 토요 스포츠 강사 확대 : ('11) 324명 → ('12) 4,789명
 - ※ 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 확대 : ('11) 30개교 ⇒ ('12) 57개교
- 문화예술 소외·취약 지역, 학교폭력 발생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제공
 -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확대 : ('11) 65개교 ⇒ ('12) 300개교
 - ※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 ('12) 678개
 - ※ 예술교육선도학교 지정·운영 : ('12) 71개교
- 체육·예술 교육 확대로 어려운 학교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수사례 확산

《예술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 부원중》

-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 60명으로 학생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 * 2012년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
- (주요 성과) 학교폭력에 자주 연루되었던 학생이 오케스트라 활동 이후(2년) 교우관계가 원만해지고 학업 성적도 향상하는 등 참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이 긍정적으로 변화



-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자치 활동* 지원 확대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12.4.20)

-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 '12.7월 시범운영(15개교)을 통해 개발한 어울림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 2학기부터 대상학교 확대(50개교)

*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상담·감정공유·심리치유 등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 연현중 >>

- (현황) 학생 간 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방관하는 학생 분위기
- (주요 내용) 1단계 : 명취 - 2단계 : 변호해줘 - 3단계 : 학생자치법정으로 이어지는 학생 문제 해결 프로그램 도입
 - * 학기마다 학급 투표를 통해 5인의 학생 변호인단 선출·운영
- (주요 성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 갈등을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 향상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동참하는 학부모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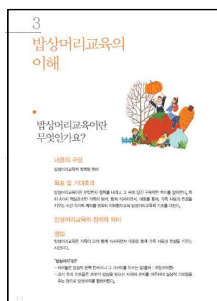
<학부모 교육 현황('12. 9.30 기준, 약 777만명* 참여)>

기 관	주 요 내 용	비 고
학 교	■ 단위학교별 학교폭력예방교육 연2회 실시	11,516교 (618만명)
교 육 청	■ 거점연수기관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심화연수 등 실시	157개 기관 (103만명)
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905개 기관 (30만명)
민간기업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379개 기관 (9만명)
종 교 계 민간단체	■ 종교계, 민간단체 시설, 강사 활용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온 라 인 공공장소	■ SNS활용 온라인교육(신애라와 함께하는 필통 스쿨) ■ KTX, 지하철 캠페인, 드라마·다큐 등 활용 밥상머리교육	온라인교육 (13만명)

* 교육분야 : 학교폭력예방, 밥상머리교육, 인성지도 등, 교육방법 : 강의형

- 인성교육,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 이해 확장 등을 위한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교육' 확산

<밥상머리교육 매뉴얼>



<KTX·지하철 광고>



□ 민간 주도의 인성교육 실천 확산

- 인성교육 비전(시안) 발표('12.9.4) 이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중심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 확산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12.10.8 ~ 10.31)

□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참여 확산

- 교육기관 중심 프로그램에서 민간 전문기관, 교육기부 기업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민간기업 교육기부를 통한 참여 현황】

- ▶ (업무 협약) NHN(주) 콘텐츠 공동활용 MOU(2.24), 한화증권 '행복한 학교 지킴이' 위촉식 (4.24), 민간기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 패트롤맘 등)과 합동 MOU(4.19), KBS-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합동 MOU(5.17), 현대해상 '아주사소한고백' MOU(5.24), KBO(7.30), DAUM·열린 의사회·국민은행(7.26), 인실련-삼익악기(9.4) 등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교육청간 협력 및 공동 노력 강화

-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를 완료하고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2013년부터 '학교폭력예방' 지표를 신설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 안양시》

- (주요 내용) 가해자관, 피해자관, 예방관, 상담관 등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Trouble Maker"를 공연*
* 2012.9.7~9.8(4회 공연), 총 3,600여명의 학생이 관람
- (주요 성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간접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



□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학생 - 상담, 소통 미션

가정 - 치유와 인성교육

학교 - 의견청취 및 참여 독려

사회 - 국민의 인식제고



‘아주사소한고백’ 카운슬링
장관과의 필통톡(必通TALK)
공감과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전국 28개교)



피해자가족 치유캠프(6회)
가해학생 연극치료 캠프(4회)
“인성이 실력이다”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전국 모든 학교장 권역별 연수
다큐멘터리 영화 ‘BULLY’
전국 생활지도부장 관람회



롯데백화점, 대한항공 등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장관 - 학부모 관람행사
팟캐스트 ‘신애라의 필통스쿨’

□ TV, 라디오 등 공중파 매체를 적극적 활용

- 청취율이 높은 공중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부터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시청자들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되, 적당한 정보 전달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몰입도 있는 프로그램 기획

TV, 라디오 공익광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와 특별방송

MBC 잠깐만 캠페인

청소년이 즐겨 듣는
‘별이 빛나는 밤에’,
‘키스더라디오’에
학교폭력 예방 광고 집행

KOBACO 공익광고 캠페인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KBS 개그콘서트 예정남 ‘학교폭력의 기준’
SBS 두시탈출 컬투쇼 ‘아주 사소한 고백’ 특집
KBS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백’



KBS 특별생방송 4회

EIDF 개막작 다큐멘터리 ‘BULLY’
KBS 드라마 ‘학교’, ‘S.O.S Save Our School’, ‘넌쿨째 굴러온 당신’
MBC 드라마 ‘못난이 송편’
SBS 드라마 ‘유령’



□ 현장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12.7월, 11월)을 통해 학교, 지역 사회, 일반 국민의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

언론 보도를 통한 확산

사례 공유를 통한 소통

공모전 우수사례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전국 11,700 개
모든 학교에 송부



조선일보(7월 17일)
일진 불러담임 집서 하룻밤 재우자... 학교폭력 0'
중앙일보(7월 23일)
‘하루 세 차례 5분씩... 대화가 폭력 막지요’
국민일보(8월 1일)
‘교사와 학생 소통하니... 학교폭력 없어졌어요’
중앙일보(9월 24일)
‘폭력은 안돼... 영화 찍으며 철든 아이들’

공모전 시상식과 연계된 토크콘서트를 통해
우수사례의 공유 및 소통



□ 전국 100개 학생 동아리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7가지 학교폭력 예방 실천서약」을 안내하여 친구들에게 서약을 받고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 진행(12.11월)
- 학생 서약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부모되기’ 서약 동시 진행

□ 학생들에게 친숙한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정보 제공 활성화

- 네이버, 다음, 트위터, 어플리케이션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여러 온라인 창구를 활용하여 신고안내, 상담 등 정보제공을 활성화

NAVER & TWITTER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DAUM 마이피플 ‘상다미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학교상담선생님 500명을 활용, Naver 지식파트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 컨설턴트’ 온라인 상담 * 답변채택율 80% 이상 ▪ ‘StopBullying’ 트위터 오픈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일 1트윗 * 팔로워 1,8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개발, 보급으로 최신 정보, 신고, 교육자료 제공 * 60,000명 이상 다운로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Kb 국민은행-열린의사회 DAUM- 4자 MOU 체결로 마이피플 ‘상다미쌤’이 학교폭력 상담, 매달 10명의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www.stopbullying.or.kr) 오픈(12.11.1)

- 학교폭력 관련 최신 정보 및 가·피해상황 셀프 체크, 관련 사이트 추천 등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참 고

부처별 주요 추진 내용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으로, 대책 발표 이후(‘12.2.6), 각 부처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

피해학생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Wee 프로젝트 확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학교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실태조사 법제화, 117 신고센터 통합, 학교 컨설팅, 상담교사 확충, 학생부 기록·관리 개선, 담임제도 개선, 교원 연수 등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예술교육 확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 등

-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소를 증설하여 가해학생과 보호자(959명)에게 심리상담, 법교육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법교육 강사를 통하여 학생(33만명), 학부모(1,400명), 교사(7,4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60개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 콘텐츠(6종) 등 각종 맞춤형 교재와 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227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4,113건),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49만명) 및 사이버폭력 예방(3,561개교, 92만명)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단위학교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초·중·고생 대상(10만명)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게임문화교실(1,100개교) 등을 운영하였다.

* (예술강사) 6,531개교/4,263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 3,120개교/2,838명, (토요스포츠강사) 3,601개교/4,789명 배치, (토요문화학교) 151개 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는 학생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전략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12.6월)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29,872명), 치료비 지원(1,227명)을 실시하였으며, ‘13년 5개 국립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단위학교(3,630개교)에 또래 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사이버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1,396명), 가족캠프(280가족) 등을 추진하였다.

* 또래상담·중재 지도자 5,809명, 또래상담자 46,286명 양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실(71개교), 순회강연(70개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96개교) 등을 통한 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PC·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였다.

-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17개)하였으며, 사안별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분류,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을 통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일진 등 불량씨클(597개)에 대해 강력 대응 및 멘토링(17,991명), 선도(13,293명)를 통해 보복폭행 및 재범을 방지하여 왔으며, 학교전담경찰관(514명)을 통해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하였다.